무공해 먹을거리 자급자족 … "건강도 지키죠"

■ 함평군 대동면 박경종·남미숙 부부

광주생활 접고 4년전 흙집·농지 구입 옮겨와

고추·콩·과실류 등 농약·비료 사용 않고 재배

원어민 교육 등 도시 못지 않는 교육 여건 만족

함평읍에서 목포상수도 수원지를 지나 꽃무릇으로 이름난 용천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자리한 대동면 연암리 구적마을.

박경종(44)·남미숙(41)씨 부부는 4년 전 불혹(不惑)의 나이인 '40'을 인생 전환점 삼아 광주에서 이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건축업을 하던 박 씨는 소방공무원인 부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으려 화순·담양·영광 등 광주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다 함평에서 53㎡(16평) 규모의 농가와 1천320㎡(400여평)의 농지를 1천500여만원에 구입했다.

벽 두께만 40여㎝에 달하는 전형적인 시골 흙집을 크게 손대지 않고 기둥과 외벽만을 수리, 보완했다. 대신 집 입구 처마를 길게 잡아내고 평상을 설치해 툇마루처럼 사용하고 있다.

"농사일을 전혀 해보지 않아서 처음에는 감자를 심고나서도 싹이 날 것인가 싶어 매일 확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영광 염산 출신이면서도 어릴 적 낫질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박 씨로서는 농사일과 시골생활이 생각처럼 간단치 않았다. 4년이 지난 지금은 2천640㎡(800여평) 농지(임대 포함)에서 벼농사는 물론 감·포도·매실 등 과실류와 고추, 배추, 콩, 수수 등 작목을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다. 또 유정란을 얻기 위한 양계와 마·구기자 등과 같은 약초, 표고버섯도 가족이 먹을 정도로만 재배한다.

그래도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겠다'는 농사철학만은 확고하다. 덕분에 박 씨 가족은 쌀은 물론 반찬류, 두부, 콩나물 등 먹을거리의 80%가량을 '무공해'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부인 남미숙씨는 "학원 안 다니고, 먹을거리 안 사고 돈이 안 들어가니 생활이 더 나아졌죠. 손만 부지런하면 사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먹을거리가 지천이니까요"라고 말했다. 남 씨는 점심거리로 무쳐먹기 위해서 잠깐 사이 집앞에서 고추잎을 따왔다. 철 따라 인근 야산에서 참취, 두릅, 엄나무 순, 죽순, 고사리 등을 채취하는 재미가 있다.

시골생활은 중학 2학년(15)과 초등 2학년(9)인 형제의 생활도 변화시켰다. 도시에서는 TV와 컴퓨터, '공부 위주의 문화'였던 반면 이곳에서는 모래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곤충과 별을 관찰하는 등 자연 속에서 놀 줄 알게 됐다. 게다가 조미료를 안 썼음에도 김치나 나물 등을 자연스럽게 잘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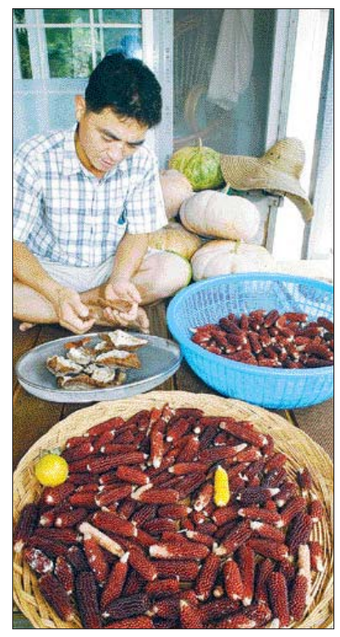
특히 제일 우려했던 교육문제 역시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의 영어교육,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 방과 후 갖는 수영교실, 사이버 교육 등 도시 못지않은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만족스럽다.

박 씨는 "애들에게 공부하란 말 안 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해나가게 하죠"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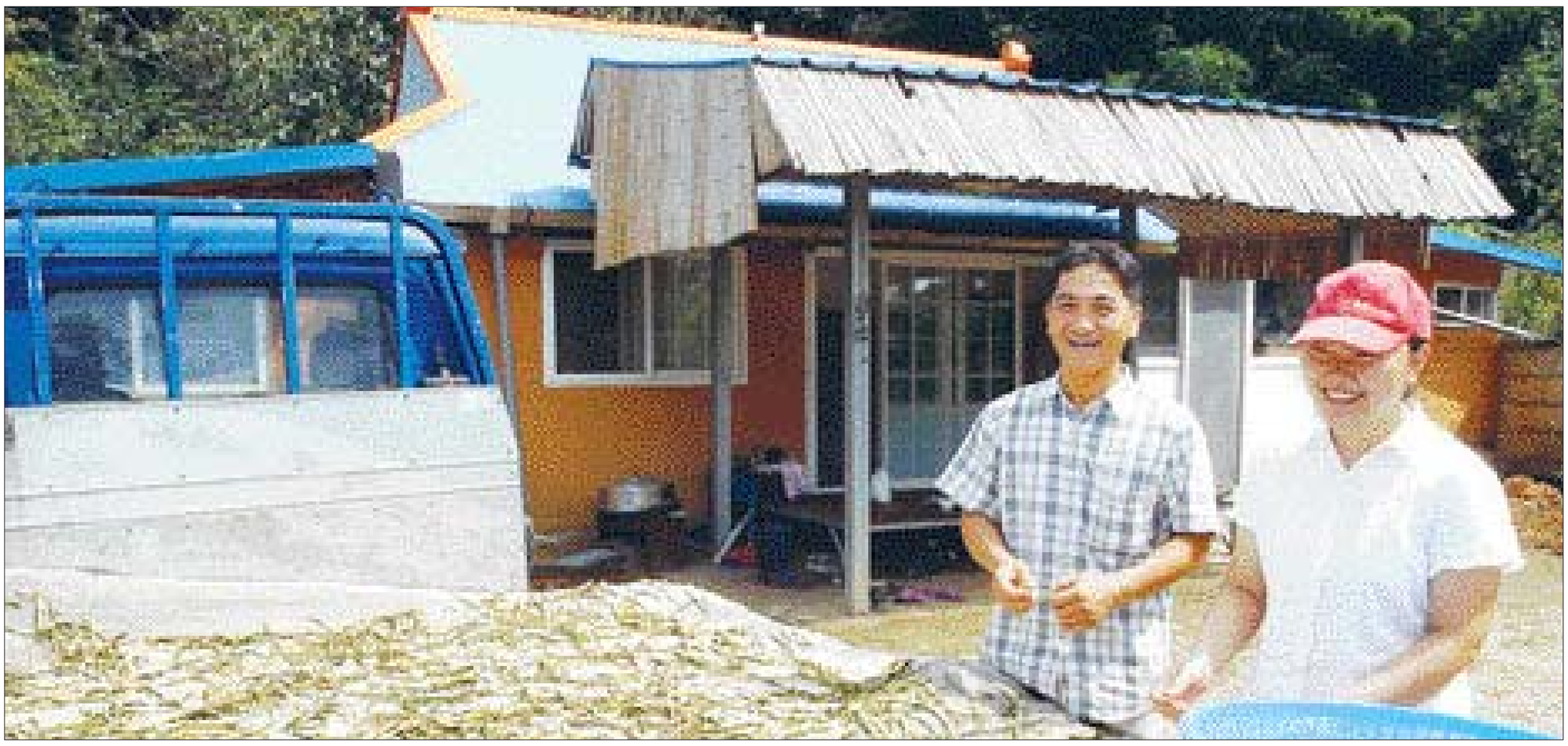
함평 소방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남 씨는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바퀴를 한다. 겨울철이면 큰 눈이 내려 출근길이 힘들기도 하지만, 운전할 수 있다면 젊은 사람도 시골생활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취재를 마치고 나서는 기자에게 부부는 마당에서 애호박 두 덩이를 따서 건넨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부부지만 마음 씀씀이만은 어느새 넉넉한 시골인심까지 닮아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팝콘용 옥수수와 말발굽 버섯. 옥수수를 후라이팬에 넣고 열을 가하면 팝콘이 된다.



박경종·남미숙 부부가 가을햇살에 토란대를 말리고 있다. 쌀은 물론 반찬류 등 먹을거리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천년 고찰 용천사 꽃무릇 군락지 장관

■ 주변 가볼만한 곳

함평 해보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용천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꽃무릇 〈사진〉 군락지이다.

9월 이맘때면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이룬다. 용천사에서 용봉~구수재~동백골을 거쳐 불갑사로 이어지는 3.8㎞의 오솔길도 꽃무릇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이다.

인근의 대각리 오두마을에 자리한 '황토와 들꽃세상'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해 김요한 목사가 운영하는 농촌체험 휴양시설로 야생화 식물원, 나비·곤충체험장, 민박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해보면 산내리의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은 퇴직 교사 부부가 2006년 세운 미술관이다. 마을주민을 주인공으로 한 '우리마을 산내리전' 등 알찬 전시와 도자기만들기,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보면 모평마을은 고택과 누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2005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상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로 지정돼 고택 복원과 한옥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